

한일 스타 모두 모였다... 달아오르는 MLB 내셔널리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이정후, 다저스에 오타니·야마모토
김하성·다르빗슈 속한 샌디에이고에 마쓰이 합류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한국,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두 집결했다. 한국 야구 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한 이정후(25)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와 6년, 총액 1억1300만 달러(약 146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최대 규모 계약이다. 한국인 빅리거 프리에이전트(FA) 계약까지 범위를 넓혀도 역대 총액 2위다. 역대 총액 1위는 추신수(현 SSG 랜더스)가 2013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할 때 기록한 7년 1억3000만 달러다.

이정후가 데뷔 시즌부터 1번 타자 중견수를 맡을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2022 시즌 타격 5관왕에 오르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쥔 이정후가 MLB에 정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NL 서부지구에 속해 있는 LA 다저스는 이번 겨울 화제의 중심에 섰다.

FA 시장에서 단연 최대어로 손꼽히던 오타

니 쇼헤이(29)와 10년, 7억 달러(약 9072억원)에 계약했다. MLB를 넘어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다.

다저스와 오타니의 계약은 MLB를 뒤흔들여 왔다.

오타니가 7억 달러 중 97%를 계약 종료 후 받기로 한 것과 마크 워터 구단주나 앤드류 프리드먼 야구운영 부문 사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 옵트아웃을 실행해 FA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오타니와 맺은 독특한 계약 조건 덕분에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긴 다저스는 FA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거론된 우완 투수 야마모토 요시부(25)까지 불잡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다저스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의 문을 두드린 야마모토와 12년, 총액 3억2500만 달러(4212억원)에 계약했다.

역시 같은 지구 소속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는 이미 한국, 일본을 대표하는 빅리거가 뛰고 있다. 한국인 내야수 김하성(28)과 일본인 베테랑 투수 다르빗슈 유(37)다.

2021년 1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김하성은 올 시즌 정상급



내야수로 우뚝 섰다.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NL 유틸리티 부문)를 품어 안았다. 공격에서도 한층 발전한 모습을 자랑한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핵심 자원으로 입지를 굳혔다.

다르빗슈는 빅리그에서 무려 11시즌을 누빈 베테랑이다. 2020년 12월 트레이드를 통해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다르빗슈는 2022시즌 16승 8패 평균자책점 3.10으로 활약했다. 올해 2월 샌디에이고와 6년, 1억800만 달러에 재계약한 다르빗슈는 올 시즌에는 8승 10패 평균자책점 4.56에 그쳤고,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수술은 받지 않아 다르빗슈는 내년 시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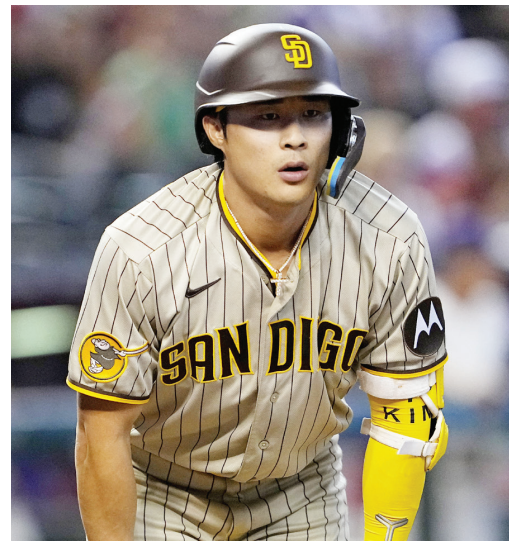
막전부터 마운드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샌디에이고는 일본인 투수 한 명을 또 영입했다. 2년 연속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세이브 1위를 차지한 원손 마무리 투수 마쓰이 유키(28)와 5년, 총액 2800만 달러(약 362억원)에 계약했다.

한국 야구 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단연 이정후와 김하성의 방망이 대결이다. 둘은 2017~2020년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은 절친한 사이라 맞대결의 의미가 한층 각별하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3월 29일 미국 본토 개막전부터 맞붙는다.

오타니가 올해 9월 팔꿈치 인대절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아 투수로 뛸 수 없는 가



운데 동갑내기인 이정후와 야마모토의 투타 대결도 흥미를 끄는 요소다.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내년 시즌 첫 대결은 4월 2일에 펼쳐진다.

김하성과 야마모토의 빅리그 첫 맞대결을 서울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내년 3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이정후, 김하성과 오타니가 내년 시즌 벌일 한일 자존심 대결도 관심사 중 하나다.

NL 서부지구에서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왔다. 한국, 일본 출신 스타들이 대거 서부로 향하면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

‘축구인생 후반전’이라는 황선홍 “2024년 정말 중요한 해”

4월 파리 올림픽 예선... ‘한일전 설욕’ 다짐
“이강인 포함 최정예로 올림픽 도전하고자”

2002 한일월드컵 4강을 일군 뒤 지도자로 변신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황선홍 감독은 자신의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며 “후반전 70~80분쯤을 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26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황선홍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친 뒤 수술을 받은 오른쪽 무릎 탓에 계단을 오르는 데 다소 불편한 모습이였다.

하루 3시간씩 재활 중이라는 황 감독은 “선수 시절을 포함해 벌써 네 번째 수술이다. 수술은 잘 됐고 회복 중인데, 젊었을 때만큼 빨리 회복되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퍼펙트 금메달’

황선홍호는 올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최초로 3연패를 이뤘다. 내용도 완벽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총 7경기에서 27골을 터트렸고, 단 3골밖에 내주지 않았다. 무실점만 4경기였다.

숙명의 한일전으로 치러진 결승전에선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조영욱(서울)의 연속골로 2-1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준비 기간 내내 저조한 경기력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졌던 터라 더 값진 우승이었다.

황 감독은 “목표를 이루려면 과정이 중요하다.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을 믿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비결로 ‘밸런스’를 꼽은 그는 “처음부터 선수들에게 밸런스를 요구했다. 대표팀 특성상 짧은 기간 안에 펠 그라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처럼 만들 순 없다”며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야 했다. 선수들이 그걸 굉장히 잘 지켜줬다”고 설명했다.

그 중심에는 와일드카드이자 주장인 백승호(전북)가 있었다. 황 감독은 “승호가 밸런스를 잘 해줬다. 본인은 공격 성향이 강했는데, 그걸 억제하더라”고 말했다.

◆파리로 가는 길... ‘한일전 설욕’ 노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황선홍호의 다음 목표는 내년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과 동시에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한국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조별리그 B조에 편성됐다. 올림픽 예선을 겸한 이 대회에서 상위 3위 안에 들면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다.

지난해 U-23 아시안컵 8강에서 0-3 완패를 안긴 일본과의 재회에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일본과 대진이 확정되고, 그때 경기를 다시 2-3번 봤다. 많이 부족했다.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았고, A대표팀에 갔던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하는 등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다를 것이다. 조직적으로 더 잘 갖춰질 자신이 있다. 일본도 준비가 잘 된 팀이지만, 개인보다 팀으로 조직적으로 부딪힌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강인 그리고 꿈의 와일드카드

아시안게임을 함께한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의 파리 올림픽 합류 여부는 벌써 뜨거운 감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해결한 데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가 아닌 올림픽은 차출



의무가 없어 소속팀이 반대하면 이강인을 데려올 방법이 없다.

황 감독은 “올림픽 예선은 어렵다. 강인이 뿐만 아니라 해외파가 모두 못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선이 오면 뒤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강인이라고 따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이강인의 소속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의 올림픽 출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속팀이 반대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 축구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알만한 선수들이 대부분 병역을 해결한 상태다.

황 감독은 “구단의 허락 내에서 모을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내야 한다. 강인도 올림픽 대표팀 연령에 포함된다. 와일드카드도 최상의 멤버로 꾸리고 싶다”고 했다.

◆황선홍의 축구 철학... ‘점유’보다 ‘속도’

황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하나로 정의하길 거부했다. 그는 “세계적인 명장들이 저마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내세우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에 따라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설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굳이 나누자면, 점유보다는 속도 있는 축구를 좋아한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처음 지도자를 시작하고 포항 스틸러스에 가면서 전장으로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걸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팀으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브라이튼과 아스널을 꼽았다. 그는 “제로톱 전술에 관심이 있다. 또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프로팀을 거쳐 연령별 대표팀을 맡게 된 황 감독은 선수단 운영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대표팀은 시간이 부족하다. 뽑아서 가르치기보다 현재 잘하는 걸 파악해서 극대화해야 한다. 내 생각에 선수를 맞추기 어렵다. 내가 선수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러더라. 대표팀 감독은 ‘일타강사’가 돼야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유연함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축구 인생 후반전... ‘비판은 날 강하게 만든다’

황 감독은 자신의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며 후반전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후반이 꽤 많이 진행됐다고 본다. 60대가 넘으신 최강희(산둥 타이산) 감독님이 아직도 하시지만, 스스로는 후반 70~80분쯤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023년도 중요했지만, 2024년이 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여가도 더 없고,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승부들이 재밌고 즐겁다. 그걸 이겨내는 게 내 역할”이라며 “팬들의 질타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토틸럼 핵심’ 손흥민, ‘몸값 비싼 주장 베스트11’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틸럼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외신 선정 ‘몸값 비싼 주장 베스트11’에 뽑혔다.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27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주장 베스트11’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매체는 전 세계 축구계 주장 중 포지션 별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들로 4-3-3 전술을 꾸렸다.

이번 시즌부터 토틸럼의 주장직을 수행 중인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뽑혔으며, 5000만 유로(약 714억원)의 가치로 평가됐다.

3500만 유로(약 499억원)로 책정된 인터 마

이애미(미국) 주장 리오넬 메시와 함께 양 날개를 구축했다. 최전방에서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인터밀란 주장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배치됐다. 마르티네스의 가치는 1억 1000만 유로(약 1569억원)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 경기 19경기(리그 18경기·컵 대회 1경기)에 출전해 11골4도움을 기록하며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뿐 아니라 주전 공격수로서의 질은 존재감도 과시하고 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물론, 리그 득점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선두 엘랑 홀란드(맨체스터 시티·14골)와는 3득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뉴시스

‘89안타 남았다’ 손아섭, 내년 KBO 새 역사 쓴다

통산 2416안타... 박용택 2504안타 눈앞

NC 다이노스의 간판타자 손아섭(35)이 2024년 KBO리그 새 역사를 쓴다.

손아섭은 올해 140경기에 출전해 0.339(551타수 187안타)에 5홈런 65타점 97득점 14도루라는 좋은 성적을 남겼다. 출루율은 0.393을 기록했다.

데뷔 후 첫 타격왕에 올랐고, 개인 통산 4번째 최다안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득점 3위, 출루율 7위에 올랐다.

30대 중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타격 실력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특유의 간결한 스윙은 여전히 빠른 공과 변화구 대처에 탁월함을 증명했다.

그는 KBO리그 통산 최초로 8시즌 연속 150안타(중전 박용택 7시즌 연속 150안타)와 역대 2번째 11시즌 연속 200루타를 달성했다.

그는 올해 지명타자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손아섭은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손아섭은 KBO리그 통산 2416안타를 때려냈다. 통산 1위 박용택(2504안타·은퇴)을 바짝 추격했다. 앞으로 89안타만 치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역대 최다안타 3위이자 현역 2위인 최형우(2323안타·KIA 타이거즈), 김현수(2236안타·LG 트윈스)가 손아섭을 추격하고 있다.